

# “판소리 중심 전통 창극시대 열고 싶어”

조용안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취임 간담회

### 전북 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 장단 보유...국악 전승·보급 앞장 국악 버스킹·전 연령층 타깃 공연 도입 계획...7월부터 새 프로그램

“전통 5음계를 7음계로 변화시키거나, 미니멀한 무대 구성이 돋보이는 컨템포러리 국악도 좋지만 지금이야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같아요. 전통 예술이 그 형태나 포맷을 바꾸는 주기가 있다면 30여 년 정도는 생각해볼데, 지금이 적기죠. 판소리를 중심에 둔 전통 창극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전남도립국악단(이하 국악단) 제8대 예술감독에 취임한 조용안 감독은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창립 40주년을 앞둔 국악단의 비전을 제시했다. 1986년 남도의 전통 가무악회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가무악단으로 출발했던 국악단의 본래 정체성에 주목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 장단 보유자인 조 감독은 원광대에서 음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 국악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 단장과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마당 창극 ‘천한 맹인이 눈을 뚫다’를 연출하는 등 국악의 전승 및 보급에 앞장섰다.

취임 이후 조 감독은 시즌2까지 진행해 온 토요 가무악회 ‘그린국악’을 잠정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린국악 시리즈가 기치로 내걸던 ‘기본으로 돌아가다’라는 취지는 계승하되 기본에 충실한 새 전통창극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당장 오는 7월 경부터 연이은 음을 뜻하는 말 ‘이음’을 주제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그는 “남도는 판소리 분향인 만큼 ‘조선팔도명창’이라는 주제로 대표 창극을 시리즈로 선보이고 싶다”며 “조선 전·후기 8명창을 나눴던 것처럼 재미있는 비화가 담긴 인물들의 일대기를 극화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통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진 ‘MZ 관객’들에게 외면받을 우려도 있다. 한편으로 국악단이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터라 인접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에 대해 조 감독은 “전용 버스를 확보하거나, 뉴욕의 사례처럼 목포 등 인근 밀집지를 찾아가 ‘국악 버스킹’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며 “어름 음악회 같은 특별 기획, 어린이 국악단을 활용한 ‘전 연령 관객 타깃 공연’의 도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귀명창’ 관객 육성 계획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관객들이 취임새 등으로 공연자와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전통예술 공연은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귀명창 관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귀명창은 소리 할 줄 모르더라도 감상하는 수준이 판소리 명창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의미한다. “귀명창 있는 곳에 명창이 있다” 등의 경구처럼, 이들은 판소리의 창조적 계승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조 감독은 “자체 국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귀명창 관객을 직접 육성해, 공연자와 관객들이 함께 호흡하는 전통예술 공연의 ‘완결성’을 높여겠다”며 “관객들이 사설, 성음, 장단을 인지하고 연주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이면 국악단이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불혹이라는 말처럼 국악단이 주위 여건 등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달 제8대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조용안 씨.

“내년 40주년에는 ‘국악 난장’이라는 주제로 대축제도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 연출적 변화를 토대로 ‘전통 계승’과 ‘현대와의 조화’를 모토로 하는 국악단을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제 69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 중창·합창

〈심사위원〉  
임선애(사)한국음악협회 광주지회 부회장

### ◇중창

- ▲금상 1 박하정 외 11명(광주송원초)
- 2 김서영 외 13명(광주삼육초)
- ◇합창
- ▲금상 1 유리아 외 67명(광주송원초)
- 2 김화홍 외 36명(살레시오초)

### 중주·합주

〈심사위원〉  
김봉혁(목포대 명예교수)  
주민혁(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

### ◇타악 중주(초등부)

### ▲금상

### 1 배하울 외 11명(광주송원초)

### ◇관악 중주(초중연합)

### ▲동상

### 1 신지을 외 4명(초중연합)

### ◇현악 중주(바이올린)

### ▲금상

### 3 문설아 외 4명(초등연합)

### ▲동상

### 1 정은서 외 14명(살레시오초)

### 2 최우정 외 3명(초등연합)

### ◇현악 중주(첼로-초등연합)

### ▲동상

### 1 김보하 외 5명(초등연합)

### ◇현악 중주(첼로-중등연합)

### ▲금상

### 1 박주환 외 6명(중등연합)

### ◇현악 중주(초등부)

### ▲금상

### 1 김우진 외 13명(광주송원초)

### ◇현악 중주(초중연합)

### ▲금상

### 1 임채민 외 1명(초중연합)

### ◇현악 중주(초중고연합)

### ▲은상

### 1 한가연 외 12명(초중고연합)

### ◇관현악 중주(초등부)

### ▲금상

### 1 진유현 외 13명(광주삼육초)

### ▲은상

### 2 임하은 외 13명(광주교대광주부설초)

### ◇관악 합주(초등부)

### ▲은상

### 1 정예원 외 28명(연제초)

### ◇관현악 합주(초등부)

### ▲최고상

### 1 최지우 외 76명(광주송원초)

### ▲금상

### 2 오윤주 외 63명(살레시오초)

### 3 임하은 외 52명(광주교대광주부설초)

### ◇관현악 합주(초중고연합)

### ▲은상

### 1 한가연 외 45명(초중고연합)

## 광주 무형유산 ‘문굿’·‘판굿’의 신명

광산농악보존회 다음달 2일 전수교육관서 정기발표회



제23회 광산농악 정기발표회에서 ‘판굿’ 공연을 펼치는 장면.

〈광산농악보존회 제공〉

광주시 무형유산(무형문화재) 중 유일한 농악 종목인 ‘광산농악’의 눈대목 ‘문굿’과 ‘판굿’을 만나. (사)광산농악보존회가 광산농악 전수교육관(하남동)에서 오는 6월 2일 오후 2시에 ‘제26회 광산농악 정기발표회’를 개최한다.

먼저 펼쳐지는 ‘문굿’은 농악대의 의례적·예술적 활동인 걸립을 할 때 마을 입구에서 허락을 받기 위해 치는 굿이다. 걸립을 위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기량을 펼치는 시범 농악의 일종이며 마을의 다리 설치, 회관 건립 등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펼쳐져 왔다.

전통적으로 문굿은 특정 마을의 농악대에게 양해를 얻고 진행했다. 문굿 과정에서 기량이 뒤쳐질 경우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했기에 문굿은 걸립 농악대의 예술적 기량을 집약한 굿판으로 여겨져 왔다. 이어지는 ‘판굿’은 광산농악의 전 대목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연행했다. 마을의 화합과 일상의 피로를 푸는 대동놀이, 축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마당뽕이’로 액을 물린 후 잡새, 농 쉼인 재담으로 청중들의 웃음꽃을 피워내는 놀이다. 기락을 중심으로 한 음악적 요소, 각종 진법, 기예 등이 뒤섞여 있어 농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정으로 손꼽힌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8호인 (사)광산농악보존회는 1990년 설립, 광주지역 농악을 정립하는 데 일조해 왔다. 1990-1991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해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광산구 하남동 가야재 옆에 광산농악 전수교육관을 개관했다.

광산농악보존회 김지은은 “이번 무형유산 공개행사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광산농악’을 관객들이 접해보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며 “문굿과 판굿이 선사하는 전통의 신명이 관객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교보문고 최장기 스테디셀러 1위는 ‘호밀밭의 파수꾼’

20여년간 매월 100권 이상 판매... ‘데미안’ ‘사과가 쿵!’ 순

‘호밀밭의 파수꾼’이 교보문고가 집계한 최장기 스테디셀러 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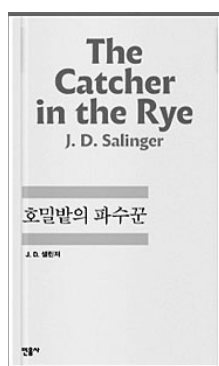
교보문고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24년 4월 까지 매월 100권 이상 판매된 도서 중 5년 이상 지속된 100종의 최장 스테디셀러를 발표했다. 그 결과 ‘호밀밭의 파수꾼’은 최장 스테디셀러 1위로 집계됐다. (2004년 11월부터 234개월(19년 6개월) 연속으로 매월 100권 이상 판매됐다.)

2위는 2006년 5월부터 216개월(18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데미안’, 3위는 2006년 7월부터 기록된 ‘사과가 쿵!’이 차지했다. 인문/교양 분야에서는 ‘생각의 탄생’,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들’과 함께 과학 분야의 클래식 ‘코스모스’가 높은 순위에 올랐다.

100종의 최장 스테디셀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설이 34종으로 가장 많았다. 인문/교양 20종, 유아/어린이 16종, 시/에세이 15종, 비즈니스 15종 순으로 나타났다.

소설 분야에서는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의 ‘호밀밭의 파수꾼’, ‘데미안’, ‘1984’를 비롯해 ‘앵무새 죽이기’, ‘노르웨이의 숲’, ‘자기앞의 생’ 등 현대 고전이 포함됐다. 인문/교양 분야에서는 ‘생각의 탄생’,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등이다. 구원회 이커머스영업1파트장은 해당 스테디셀러들이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은



이유에 대해 “100종의 스테디셀러들을 살펴보면 오랜 세월 검증받은 고전들이 다수 포함된 점, 한 번 읽소문을 탄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의 지속적인 인기, 유튜브의 도서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스테디셀러 100종 소개 페이지에서는 스테디셀러 100권을 주문 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문고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

##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